

그동안 회화와 사진, 영상과 설치 등 예술의 모든 영역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작업을 해온 이강우가 <2003 the Praises of Light - Collecting Mass Cult Context>라는 다소 난해한 작업을 선보인다. 하긴 그에게 넘나든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지 모른다. 매체 또는 예술의 영역 같은 단어들은 그것에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니까 경계를 인정했을 때 넘나드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강우에게 그런 경계 또는 영역이 원래 존재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니까 하는 말이다.

아무튼 그는 물론 박건희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젊은 작가 지원프로그램인 다음작가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서 신작을 선보이게 되는데, 난해하게 보이고 좀 길어 보이는 제목을 붙였다. 그 제목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빛을 찬양하면서 빛의 도움으로 대중문화의 문맥을 수집하는 2003년의 작업이라는 것인데, 결국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대중문화의 속내를 밝혀내는 작업을 하자는 것이며 그 속내란 빛의 교묘한 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빛의 유희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빛은 우리에게 이미지를 만들어 보내주는데 그 이미지는 그 자체로 보면 사실일 수 있지만 사실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사실이 이미지로부터 비롯된 것일 확률이 많으니까 그 자체로 사실이지만 실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이 이미지이다. 이미지는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는 이 동어반복의 모순이 어찌 보면 이강우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며 그가 파악한 대중문화의 실체일 수가 있겠다. 그럼 대중문화는 실체인가 아니면 단순한 이미지에 불과한 것인가? 작가는 대중문화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했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대중문화는 없다는 말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는 우리는 무엇이며 작가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럼 혹시 언어도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닌가? 빛의 성찬은 이렇게 우리를 혼돈과 몽환의 상태로 이끈다.

사진과 언어가 결합되고 설치와 영상이 교차하는 이강우의 작업을 보면 프랑스 시인 말라르메(Mallarme)의 연구가이자 비평가인 기 미쇼(Guy Michaud)의 시인을 향한 언명이 떠오른다.

“언어와 이미지의 진정한 혼합이 영감에 의해서이든, 외적 세계에 의해서이건 우선 우발적으로 그에게 제공 되었으므로, 그들을 중복시키고, 그들을 서로 결합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상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허락하는 ‘유사(類似)’가 솟아나오게 하는 것만이 문제인 것이다.”

대중문화를 장식하는 각종 요소들을 수집(collecting)하는 이강우는 그 채집된 대상들을 작품 속에서 중복시키고 결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의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데, 여기서 중심의 개념은 유사(類似)이다. 그리고 보면 원래 이미지의 존재방식이 무엇과의 유사이고, 대중문화가 이미지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삶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대중문화가 유사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래서 이강우는 <꽃 시리즈>등에서 생화와 유사한 조화를 사진으로 찍어서 마치 생화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결국 천조각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실체와 이미지 사이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럼 이 자리에서 작가의 말을 빌려 이강우의 이번 작업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크게 다섯 개의 시리즈로 구성된 그의 작업 <2003 the Praises of Light - Collecting Mass Cult Context>은 지금까지 발표된 작품에 비해 그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지고, 방법론도 많이 간결해진 듯하다.

대중문화의 문맥을 수집하고 여기에 관련된 빛의 역할을 강조한 이번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언급하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최근 나는 (대중)문화와 연관된 우리 삶의 스타일(Style)과 그 속에서 유통되는 구체적인 감각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것들을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작업의 동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내게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 문맥들의 처소로서 오브제화 된 신체와 풍경 그리고 사물들의 시각적 양상들에 대한 정밀한 기록과 재구성(편집과 연출)을 통해 그런 기호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힘'의 의미들에 대한 비평적 추출과 제시가 이번 작업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또는 대중문화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힘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권력으로 파악한다고 자주 얘기하는 작가가 (대중)문화의 양상을 작업에서 언급해야 하는 당위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으며, 작가의 (대중)문화에 관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사실 나뿐만이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우리가 (대중)문화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해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사회와 삶의 대부분은 거대한 (대중)문화조직의 일부로 편입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훨씬 넘어선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고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 속으로 깊숙이 내면화되고 신체화된 '제도'이자 '권력'으로서 그것의 제 양상들을 작가의 입장에서 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쉽게 외면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그런 대중문화의 제 양상들을 바라보고 그 정체를 읽는 일이야말로 현재 우리 삶을 분석하는 주요한 통로이자 의미 있는 작업의 대상입니다. 다양한 전략과 경로를 통해 복제되고 유통되고 확산되는 수많은 오브제와 이미지들 속에 존재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성-분열-해체-재구성'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은 항상 내게 문제거리로 인식되어 왔고, 이번 작업은 그런 환경과 양상들에 대한 나의 반응과 수용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된 상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특히 사진이 주를 이루기도 하는데, 작품의 테마들에 접근하는 방식과 전개 방법에 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 자신이 항상 개인성의 구현을 본업으로 하는 '작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작업에서 나는 되도록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업의 주제인 Collecting Mass Cult Context 즉 대중문화의 문맥에 접근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문화적 양상들(신체, 풍경, 오브제)을 '응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요소들을 '채집', 혹은 '수집'(collection)이라고 말해도 좋습지만, 아무튼 컬렉션을 한 다음에 '테마의 분류 (모조와 스타일의 테마아래 4가지 소재들-조화, 집, 마네킹, 모조오브제, 신체 등)'를 거쳐 '기록'을 한 다음, 거기에 문자 혹은 텍스트들을 결합시켜 재구성했습니다. 이 전체의 과정에서 사진은 기록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사진의 속성이 (대중)문화의 컨텍스트와 서로 긴밀히 결합하여 내 작업의 의미를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고 봅니다.

나는 이번 작업에서 사진을 주로 즉물적 감각의 기록방식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집한 사물의 형태와 그것의 섬세한 세부 디테일의 기록을 위해 대형카메라 프로세스와 스튜디오 조명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업에서는 사물에서의 '빛의 시각적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아크릴'소재를 촬영의 배경으로 설정하였고, 전시의 주제인 '빛의 찬미 The Praises of Light'의 역설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주로 '역광'을 활용하여 대상들을 촬영함으로써 그것의 시감각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능한 크게 프린트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상차원의 안정적인 화면 크기 대신 대형화면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관객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체험적 효과를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상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는데, 작품에서 멀어질수록 작품에 담긴 내용물들이 미적 혹은 이미지적 감각을 수반한 관조의 대상으로 보이게 하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관객들에게 사진화된 사물의 실체와 그 존재감이 세세히 그리고 강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식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활용에 대해 말하자면 '어떤 결론의 제시' 대신 관찰자와 수집가의 관점으로 추출한 '의미의 제시' - 종종 반어법을 활용합니다만 - 차원으로 텍스트들을 활용 편집하여 작품의 완성과 소통에 '관람자의 역할'을 기대해봤습니다. 주로 강한 서체(impact)감각을 활용하여 '제목' - 의미가 부여된 문구 혹은 문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 에 그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이미지의 일부로서 감상성을 가진 대상으로도 함께 기능될 수 있도록 편집했습니다.

<꽃 시리즈>의 경우에는 Collecting Context from Manmade Object, Blooming Context, Artificial - The Perfect Readymade, They are not Clothes(Flowers) but Flowers(Clothes), Between Real Life and Simulation 등의 텍스트를 사용했고, 과일 편집 화면의 경우에는 Delicate Body ; We can Enjoy them Everyday, 집 시리즈에는 An Area Occupied by Style(점령지), 마네킹 편집 화면은 Stationary Troops(점령군), 가발 편집 화면은 Material - Visual - Tactical - Political, 달과 인조고기 편집 화면은 Blooming Moon(Mean) and Growing Meat Trees, 인물 화면은 Sujin Her Gestures on Complex 등의 문자를 쓴 것이 바로 그 예들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관객들과 독자들이 자신의 작업을 자신의 삶의 스타일과 경험대로 그리고 독자들 나름대로의 인식 방법론으로 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의 작업이 갖는 의미의 구조가 중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객 또는 독자가 작품을 수용하는 폭이 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표현으로 들렸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의 작업 의도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느꼈다. 그는 아주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작가이기 때문이다.